

제 출 문

통일평화연구원 귀하

이 보고서를 “2019 통일기반구축사업”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 2 . 28

연구책임자 : 이승표

목 차

제1장 사업 목표	5
제1절	5
제2절	7
제2장 사업 내용 및 방법	8
제1절	8
제2절	9
제3장 사업 성과	10
제1절	10
제2절	13
제3절	26
제4절	36
제5절	48
제4장 예산	56
제1절	56
제2절	57
제5장 사업 성과 고찰 및 결론	58
제1절	

표 목 차

〈표 1〉	14
〈표 2〉	15
〈표 3〉	16
〈표 4〉	17
〈표 5〉	18
〈표 6〉	19
〈표 7〉	21
〈표 8〉	22
〈표 9〉	23
〈표 10〉	40
〈표 11〉	40
〈표 12〉	43

그림 목 차

〈그림 1〉	20
〈그림 2〉	27
〈그림 3〉	29
〈그림 4〉	30
〈그림 5〉	30
〈그림 6〉	31
〈그림 7〉	32
〈그림 8〉	33
〈그림 9〉	34

제1장 사업 목표

제1절 사업의 목표

1. 남북 치의학 학술 교류의 기반을 마련

- 통일치의학협력센터를 기반으로 남북 치의학계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치의학교육 체계 및 관련 문화 통합과 활발한 학술적 교류의 기틀을 마련한다.
- 남북 치의학계 간 존재하는 치과치료 개념과 치의학 용어의 차이를 파악한 후, 상호 이해를 형성하고 그에 관련한 개선책을 확립한다.
- 대한민국 내 치의학계 전문가 및 비전문가 집단이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형성하고 있는 인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통일치의학의 학술적 가치와 당위성에 관련한 인식 정도를 확인한다.
- 남북 구강 건강 및 보건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비책과 방안을 수립하고, 장차 한반도 평화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남북한 치과 의료인력 및 치의학교육 기관들 간의 실질적 공조·협력 전략을 단계별로 설정한다.
- 정치와 이념 간 갈등에서 벗어나, 비정치적·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치과 의료 및 치의학 남북 협력의 접근 방안과 구체적인 교류 통로를 개설한다.

2. 통일치의학 관련 학술대회 참여

- 통일치의학협력센터와 통일치의학 분야 내 여러 인사들 간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밀한 결속을 다지고 통일치의학의 학술적 성과와 그 가치 및 의의를 홍보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술적 입지를 다진다.
- 현재 인도적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비정부 기구 및 통일부·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과의 세미나를 통하여 북한과의 인도적·학술적 교류 추진 방향을 논의 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치의학 및 구강 보건 수준의 총체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3.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장차 다가올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치의학 교육기관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이 주체가 되어 그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남북 치의학의 동질성 회복 및 평화적 공조·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4. 최종 연구 목표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남북한 치의학계간 접촉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그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남북 치의학 학술 교류의 기반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2 절 사업의 배경

1. 추진 배경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는 그간 사업 목적의 일환으로 북한 구강보건 관련 서지 발굴, 북한 구강보건 교육체계 분석, 남북한 치의학 용어 정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2013년부터 통일치의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초청강연,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북한 구강의료 논문 분석 연구를 통해 북한 치의학의 현황을 확인하였다. 탈북자 면담을 통한 북한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자료 확보와 더불어 2016년 국내 치과의사를 상대로 실시한 통일치의학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남한 치의학계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다. 2017년에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현실적인 통일치의학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한통일치의학회를 창립하였으며 북한과 접촉이 가능한 국내·외 의료, 교육기관 및 대북 지원 경험이 있는 비영리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2018년에는 대한통일치의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구강 보건 분야에서의 연구 및 교육, 학술활동과 학문적 교류를 시행하였고 하나원(안성·화천) 치아/치주 질병코드별 파노라마 분석을 통해 북한 치의학 현황을 파악하며 탈북 치과의사의 국내 연수와 재교육을 통한 국내 재취업을 시행하였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교류 및 국내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며 대한통일치의학회 및 통일치의학협력센터를 홍보하는 동시에 국내 통일치의학분야에 대한 성공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하였다.

제2장 사업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사업 내용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통일치의학 학술 연구 및 자료 구축
- 기관명: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
- 총 사업비: 20,000,000원

2. 일정별 추진 세부 계획

일정	추진 내용
2019.04.01~ 2020.01.31	통일치의학 학술 자료 수집 활동
2019.04.01~ 2020.01.31	통일치의학 관련 학술대회 참여
2019.04.01~ 2020.01.31	국내 컨퍼런스 개최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 확대, 학생들의 통일치의학 연구활동 참여 확대

제3장 사업 성과

제 1 절 통일치의학 학술 자료 수집 활동

1. 북한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현황 파악 및 통일치의학 관련 학술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일시	장소	연구 내용
2019.08.23 2019.10.10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통일교육 행정 지원 방안 논의
2019.09.10 2019.09.18 2019.11.21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통일 후 북한 치과의사 자격 부여 검토 및 연수 교육내용 제안
2019.10.02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통일치의학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2019.11.05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남북 치의학 용어 정리
2019.11.27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 활성화 방안 논의
2020.01.10 2020.01.30	한국행정 연구원	
2020.01.31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북한 치과용어집 현황 파악

2. 성과 및 기여도

- 통일치의학 교육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행정 지원의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필요한 통일 교육 행정의 수정·보완·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관한 세부 단계별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 시대가 요구하는 통일치의학 교육의 당위성 및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사회 내에서 그 인식의 저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접근법을 수립하였다. 그를 통해 통일치의학 교육 및 연구의 주체·참여자들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통일치의학 교육 및 연구, 학술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 통일치의학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북한 내 치의학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풍부한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통일치의학의 기반을 확장하고 깊이를 더하기 위한 학술적 공조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비정부 기구 및 통일부·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장차 다가올 한반도 통일시대에서의 남북간 치의학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 후 북한 치과 의사들의 자격 부여를 검토하고 관련 연수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북한 내 구강 보건 및 치과 의료교육의 수준과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향후 필요하게 될 치의학교육 및 연수·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남북 간 언어·용어·표현 사용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남북 치의학 전문 용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향후 진행하게 될 남북한 치의학계간 긴밀한 공조를 위한 북한 내 구강 보건 및

치과 치료 및 임상·치의학교육 관련 용어의 파악 및 차이점 파악, 통합적 용어 마련을 위한 논의 등을 다각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북한 내 치의학 용어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내 치의학 용어에 상응하는 북한 내 용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및 그 다양한 쓰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용례를 정리함을 통해 향후 통일치의학의 학술적 깊이를 더하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제 2 절 통일치의학 인식 및 북한주민 구강건강 현황 조사

1. 2019 통일치의학 인식 조사

1-1. 개요

- 조사 일시: 2019년 4월 1일 ~ 4월 10일 (총 열흘간)
- 조사 대상: 대한민국 치의학계 종사자 500명
- 주제: 통일 및 남북한 의료·보건 분야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인식 조사
- 내용: 대한민국의 국민 및 치의학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거에 진행하였던 2016년·2018년의 통일 인식 조사의 결과 및 2017년에 진행한 통일치의학 인식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대한민국 치의학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통일치의학 인식 조사를 진행하여 장차 다가올 미래 남북한의 평화 체제와 통일 및 통일치의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 유무 및 그 추이를 파악하였으며, 이 조사 결과를 통해 유의미한 통계적 수치를 얻었다.

문항은 총 6가지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인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에서 1) 통일에 대한 견해, 2) 통일의 필요성, 3) 통일이 필요한 이유 등을 조사하였고, 두 번째 영역인 ‘통일 시기’에서는 4)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하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세 번째 영역인 ‘통일 편익에 대한 인식’에서는 5) 통일이 남한에 미치는 이익과 6) 통일이 자신에게 미치는 이익 등을 조사하였다.

1-2. 조사 결과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여건을 보아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6년, 2018년 통일 인식 조사와 2017년, 2019년 통일치의학 인식 조사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왔다. (아래 표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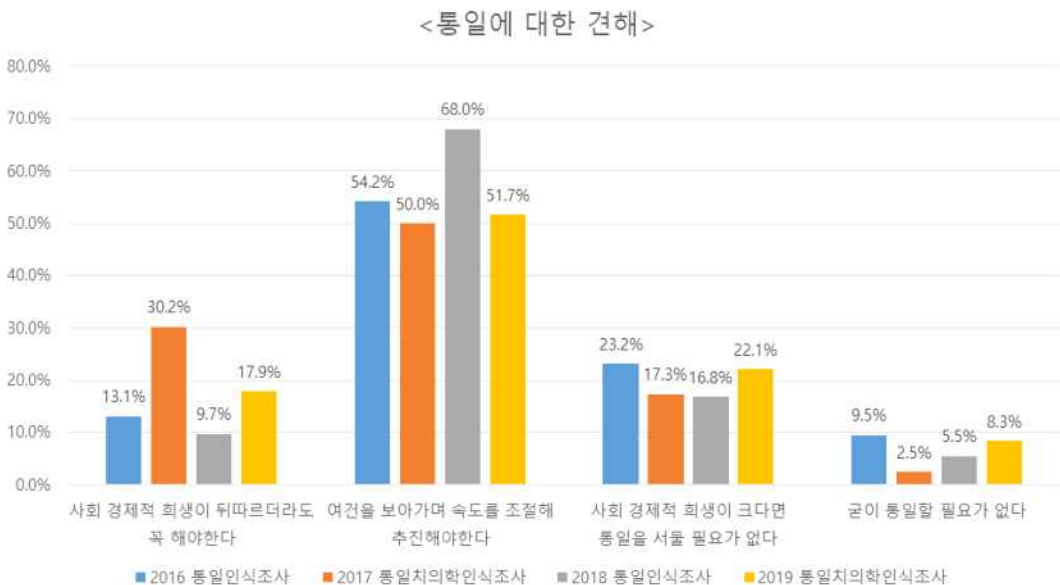


표 1

통일의 필요 정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통일인식 조사에서는 2016년보다 2018년도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하락세인 반면에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1.4%, ‘약간 필요하다’가 38.4%로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증가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통일치의학인식 조사에서는 2017년 통일치의학인식 조사에 비해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

하다’가 하락세인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7.8%,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5.8%로 부정적인 부분에서의 증가폭이 보인다. (아래 표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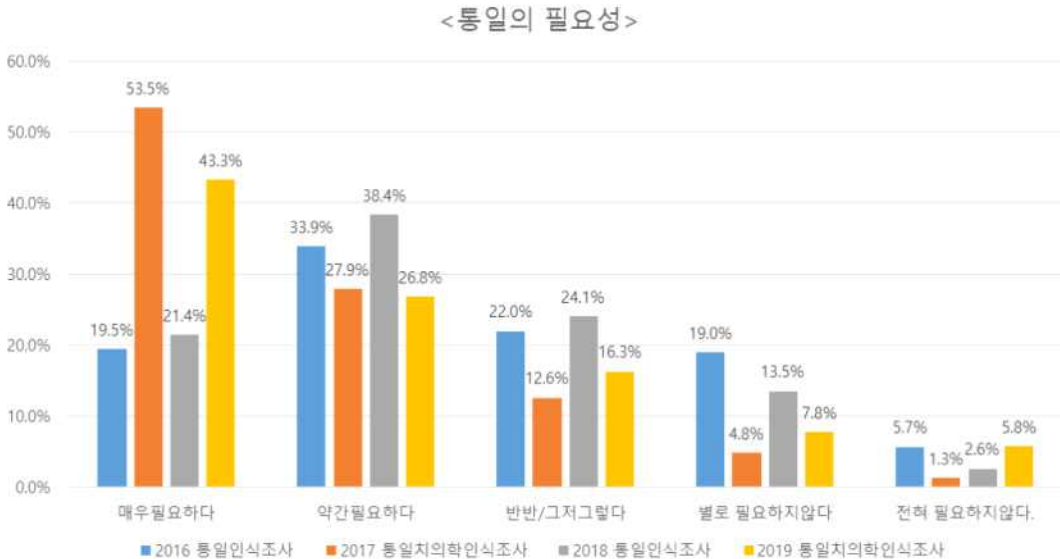


표 2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2016년, 2018년도 통일인식 조사에서 모두 ‘단일 민족으로서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에’가 각각 38.6%, 44.5%로 가장 높았다. 통일치의학인식 조사에서는 2017년, 2019년 모두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가 각각 40.6%,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페이지 표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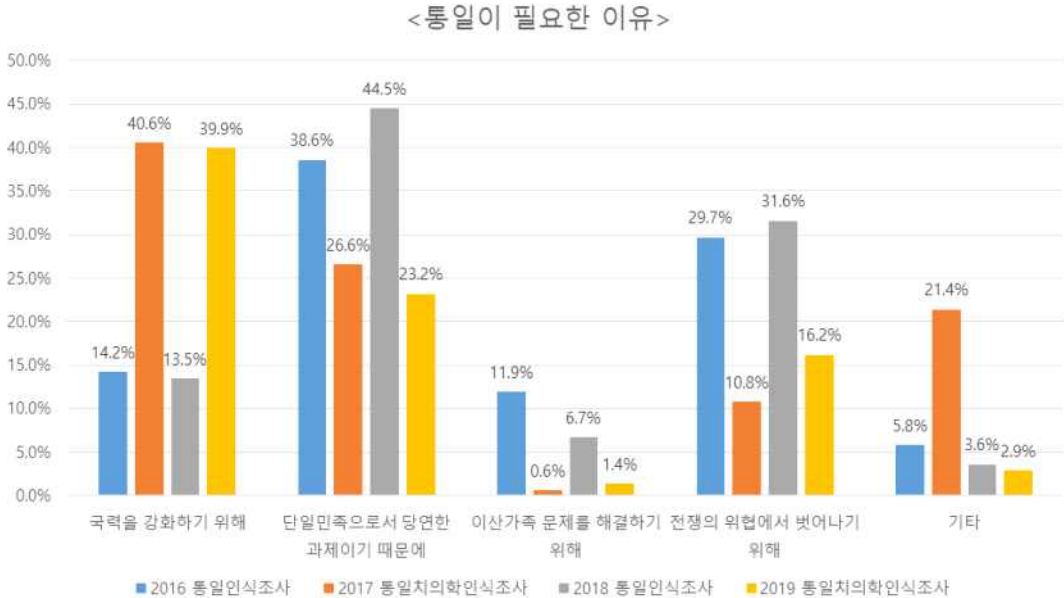


표 3

통일의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설문 조사 시기를 기준으로 향후 ‘10년~20년 이내’라는 의견이 2016년, 2018년 통일인식 조사와 2017년, 2019년 통일치의학인식 조사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밖에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2016년 통일인식 조사에서 24.4%로 높게 나왔던 것에 비해, 2018년 통일인식 조사에서는 14.0%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통일치의학인식 조사에서 2.8%였던 수치에 비해 2019년 통일치의학인식 조사에서는 10.1%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표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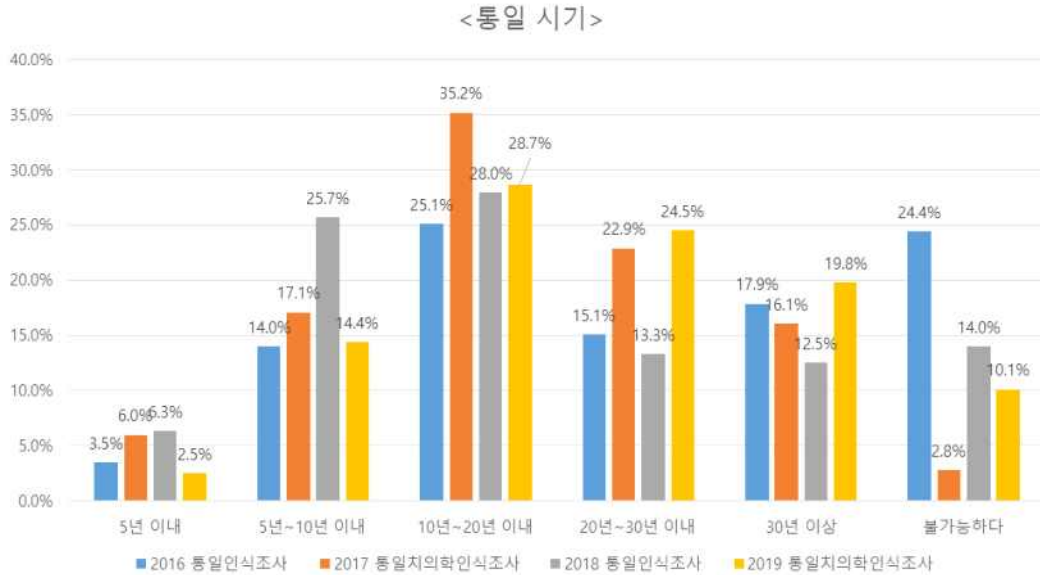


표 4

통일이 남한에 미치는 이익은 2016년, 2018년 통일인식 조사와 2017년, 2019년 통일치의학인식 조사에서 모두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높다. 2018년 통일인식 조사에서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가 47.3%로 2016년 통일인식 조사가 42.1%였던 것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9년 통일치의학인식 조사에서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가 7.8%로 2017년 통일치의학인식 조사에서 2.0%였던 것에 비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 페이지 표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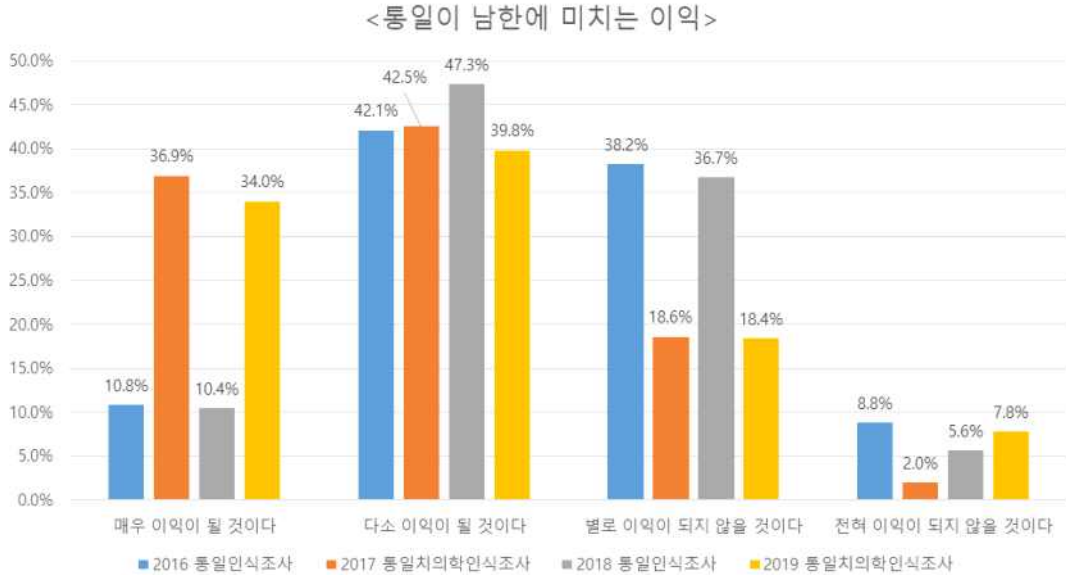


표 5

통일이 자신에게 미치는 이익에 대해서는 2016년, 2018년 통일 인식 조사와 2017년 2019년 통일치의학인식 조사에서 모두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2018년 통일인식 조사에서 16.9%로 2016년 통일인식 조사에서 19.1%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2019년 통일치의학인식 조사에서는 12.8%로 2017년 통일치의학인식 조사 7.3%에 비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표 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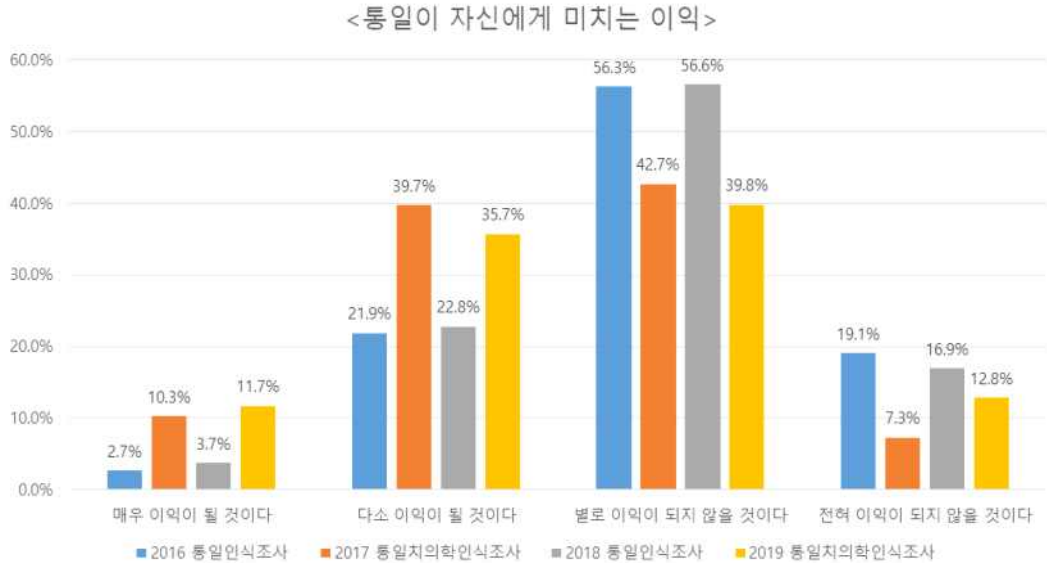


표 6

2. 2019 북한이탈주민 구강 건강과 지역별, 직업별 관련 현황 분석

2-1. 개요

- 조사 일시: 2019년 6월 3일 ~ 6월 17일 (총 14일간)
- 조사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435명
- 주제: 북한이탈주민 구강 건강 현황 조사 및 분석
- 내용: 현재 북한 내 구강 건강 상황은 매우 열악한데, 치과 치료를 위한 재료 공급이 거의 끊겼으며 치아를 치료하고도 제대로 된 후속 치료가 불가능하여 대부분 치아를 뽑는 발치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른 통일 이후 구강 보건 정책을 효

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구강 상태 및 치과질환을 파악함을 통해 현재 북한 주민의 구강 상태 및 치과질환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2-2. 조사 결과

해당 연구에 참여한 북한 내 출신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인원수는 양강도에서 277명, 함경북도에서 104명, 평양에서 16명, 평안북도 12명, 함경남도와 평안남도에서 각각 11명, 강원도에서 6명, 황해북도에서 4명, 황해남도에서 3명, 남포시에서 2명 등이다. (아래 그림 1, 다음 페이지 표 7 참고)



그림 1. 북한 행정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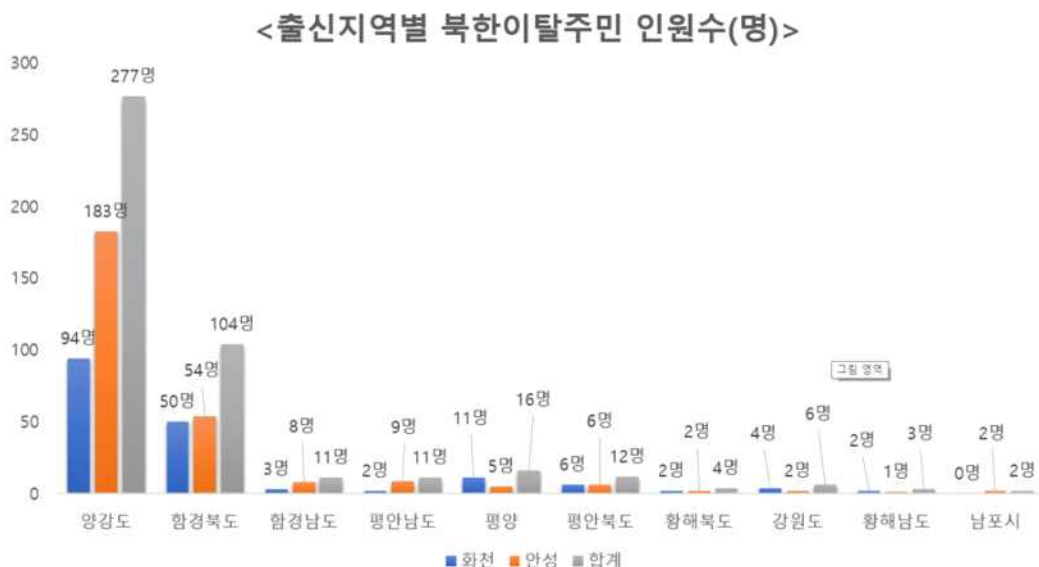


표 7

이들 지역들 중 인원이 가장 많았던 양강도·함경북도·평양의 세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양강도 출신 주민들의 평균 충치(우식)치아 수는 1.5, 상실치아 수는 2.37, 수복(충전)치아 수는 0.56으로 나타났다. 함경북도 출신 주민들의 평균 충치치아 수는 1.34, 상실치아 수는 2.27, 수복치아 수는 0.38로 나타났으며, 평양 출신 주민들의 평균 충치치아 수는 1.50, 상실치아 수는 2.63, 수복치아 수는 0.38로 나타났다. (다음 페이지 표 8 참고)

구강건강 상태



표 8

평안남도 출신 주민들의 평균 충치치아 수는 1.64, 상실치아 수는 1.09, 수복치아 수는 1.09로 나타났다. 평안북도 출신 주민들의 평균 충치치아 수는 0.83, 상실치아 수는 2.17, 수복치아 수는 0.08로 나타났으며, 함경남도 출신 주민들의 평균 충치치아 수는 1.64, 상실치아 수는 2.00, 수복치아 수는 0.09로 나타났다. 황해북도 출신 주민들의 평균 충치치아 수는 3.00, 상실치아 수는 1.75, 수복치아 수는 0.75였으며, 황해남도 출신 주민들의 평균 충치치아 수는 1.00, 상실치아 수는 0.33, 수복치아 수는 4.67이었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출신 주민들의 평균 충치치아 수는 1.40, 상실치아 수는 2.60, 수복치아 수는 0.20으로 나타났다. (다음 페이지 표 9 참고)

구강건강 상태



표 9

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평균 우식경험연구치 지수 · 우식연구치 지수 · 상실연구치 지수 · 처치연구치 지수 등을 산출하여 남한 내의 평균 수치와 비교한 결과, 성인의 우식경험연구치 지수는 34세 이하에서 남한보다 낮으나, 그 이후 45-54세의 연령대에서 남한의 평균 수치인 4.99보다 1.01이 증가한 6을 기록하였고, 55-64세의 연령대에서는 차이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남한의 6.79보다 2.47이 높은 수치인 9.26으로 나타났다.

우식연구치 지수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 25-34세의 연령대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결과치가 각각 0.77 및 0.7로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5-54세의 연령대부터는 남한의 평균 수치인 0.46보다 0.5가 더 큰 0.96, 55-64세의 연령대에서는 남한의 수치인 0.41보다 0.91이 더 큰 1.32를 기록하였다.

또한, 상실연구치 지수는 25-34세의 연령대에서는 남한은 0.34, 북한은 1로 0.66 가량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45-54세 이후의 연령대부터 더욱 크게 벌어져 남한의 1.57보다 2.87이나 큰 4.44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55-64세의 연령대에서는 남한이 3.76, 북한이

6.79를 기록하여 3.03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별히, 처치영구치 지수가 남한보다 훨씬 낮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25-34세의 연령대에서 남한은 4.5, 북한이탈주민은 0.56으로 3.94의 차이를 보였으며, 45-54세의 연령대에서 남한은 2.96, 북한이탈주민은 0.61로 2.35의 차이를, 55-64세의 연령대에서 남한은 2.63, 북한이탈주민은 1.16으로 1.47의 차이를 보였다.

처치영구치 지수와 관련한 위 통계적 수치를 통해, 현재의 북한 거주민들에게 우식되거나 빠진 치아가 많으나 그에 적절한 치과 치료 및 의료적 조치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여러 증언들이 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총체적 수치를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듯, 지금까지의 남한과 북한 간 치의학 기술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남북한 주민의 구강상태 역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성과 및 기여도

- 2019년 통일치의학 인식 조사를 통해, 2019년 대한민국 치의학계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통일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2017년의 통일치의학 인식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수치가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40~50% 이상의 높은 비율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래 한반도 통일의 시기에 대한 예측에서는 2017년의 조사 결과에서 다수가 예측했던 시기보다 10~20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는 의견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이 국가에게 미치는 이익에 대하여는 대다수인 60%이상이 여전히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미치는 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 의견과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1·2위로 각각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 2019년 북한이탈주민 구강 건강 현황 조사 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대북 구강 보건 증진 사업을 수립할 시 정책 방향은, 예방교육 사업과 함께 가능한 자체 인력 양성을 통한 상실치 수복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남북한 치의학계 간 학술적 교류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요구되는 실정이나, 현재 이러한 학술 교류는 전무하여 북한 주민의 구강 상태 및 발병률이 높은 치과 질환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남한에 입국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구강 상태 및 치과 질환의 종류를 확인하고 다각적인 정보를 구축함을 통해, 향후 한반도 평화시대의 도래에 의한 남북한 간 의료 협력 내지는 보편적 인간애에 기초한 의료 지원 등의 공조가 이뤄질 상황에 간접적으로나마 대비할 수 있다. 통일치의학 관련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치과 질환의 적극적인 예방 및 초기 대응정책 마련의 토대를 확보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인 치료비용 확대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3 절 통일치의학 연구 활동

1. 북한 치의학 학술 자료 수집

1-1. 북한 치의학 학술자료의 주요 내용 소개

- 북한의 치과의료 연구는 치과·안과·이비인후과의 세 전공 분야가 함께 하나의 의학 학술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아래 그림 2 참고)

모두다 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에로!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주제108(2019)년 제1호 (루계 제61호)
차 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및 두결부외과부분의	
의료봉사수준을 더욱 높여나가자	(3)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위성과학자후배자금을 마련해주시려고	(5)
[연구성공] 다공성 β-TCP에 에드모나다를	
첨투시켜 쓰기 위한 실험적연구	리일심, 현봉민(7)
무혈-물무이던형발색법으로 입안결박암과 전암성결병들의	
형제병위를 확정하기 위한 연구	최금일, 한태홍(8)
상악동저와 상악이탈과의 관계에 대한 해부학적연구	김영호, 조영호(9)
수면시무로통증후군환자들에게서 제2SaO ₂ 와	
AHI, BMI사이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	방려명, 미경일(10)
백혈구수출력의 함양성을 밝히기 위한 실험적연구	박명철, 김석철(11)
치주병에 에드모나다를-아독시성인발합제효과에 대한 연구	장수, 미경일(12)
수제-HAp복합체로 치주작극성안효과에 대한 연구	한철우(13)
악화정류저주열면고의 병원성혼합골격결함용에 대한 연구	김광일, 차광현(14)
상기도주위구조물들의 크기를 밝히기 위한 렌트겐학적연구	정진철(15)
폴리비닐알콜(PVA)합금지열면으로 만치찰을	
제조하기 위한 임상적연구	한정환, 김순필(16)
금속강화합금과스라이코노머세멘트의	
임상적특성에 대한 연구	김순배(17)
치바용그물망의 제조와 몇가지 특성에 대한 연구	최효순, 박희실(18)
대합조개껍질로 만든 수산화칼슘과 코드포를합체물	
이루어변형물체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	미광훈(19)
열충격형수술수 편조에 오존연고용	
제공하기 위한 임상적연구	장광명(20)
비알루본산중진피주사의 입술미용치료효과에 대한 연구	김수철, 정광호(21)
프롤라그린을 결합형으로 하는 설도알피루면으로	
눈물성형수술을 하기 위한 임상적연구	정광명(22)
임상적특성에 미치는 화해의 열화에 대한 연구	김광철, 김수철(23)
입안위생관리지원체제 《오목》 1.0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최진희, 미경일(24)
최적부두저각형인공어금이를 제공하는 물이의	
특성파라미터에 대한 연구	최영태, 최영희(25)

모두다 당 제7차대회 결정판첩에로!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주제108(2019)년 제2호 (루제 제62호)
차례	
1. 이이 알아하기 (3) 2. 연구실과 몇가지 일반병원의실 실험에 대한 검토연구의 연구결과를 밝히기 위한 실험연구 장영웅, 김광희(4) 3. 치과로영웅24-71장전교영웅을 알아본연구에 치과연구를 위한 연구 최영희, 김광희(5) 4. 일반병원의실험결과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윤현, 김광희(6) 5. 일반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7) 6.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8) 7.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9) 8.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10) 9.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11) 10.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12) 11.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13) 12.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14) 13.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15) 14.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16) 15.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17) 16.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18) 17.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19) 18.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20) 19.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21) 20. 치과연구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연구 최영희, 김광희(22)	장영웅, 김광희(4) 최영희, 김광희(5) 윤현, 김광희(6) 최영희, 김광희(7) 최영희, 김광희(8) 최영희, 김광희(9) 최영희, 김광희(10) 최영희, 김광희(11) 최영희, 김광희(12) 김광희, 박영희(13) 최영희, 김광희(14) 최영희, 김광희(15) 최영희, 김광희(16) 최영희, 김광희(17) 최영희, 김광희(18) 최영희, 김광희(19) 최영희, 김광희(20) 최영희, 김광희(21) 최영희, 김광희(22)

[illegible][illegible]

출처: 『치과·안과·이비인후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년 제1~4호

그림 2. 『치과·약과·이비인후과』 목차

1-2. 북한 치의학 학술적 연구의 동향 및 특징

○ 고려의학에 기반한 접근법:

북한 치의학계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술적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고려의학(남한의 한의학에 해당)에 기반한 의료적 접근을 치과적 치료 및 치의학 학술연구에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발간되는 의학 잡지 중 하나인 『조선의학』의 2012~2015년 발간분을 분석한 결과, 고려의학에 관한 연구 중 천연물 신약 개발에 관한 연구가 7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는 천연물 약제 개발과 이를 위한 소재 탐구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¹⁾

이러한 관심은 아래의 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산초와 세신을 사용하여 실험약물을 만들고 치아의 통증을 경감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실험을 진행한 후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통증 경감 효과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1) 신희영 외(2017). 「통일의료-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산초세신치통수의 이발아픔땀이효과에 대한 연구

박 경 일

연구대상과 방법

실험약물은 조피염제정(산초)과 콧물제정(세신)을 각각 1:1비율로 섞어 혼합제정을 주를 띠고 다시 70%에틸알콜로 2차 추출하여 얻은 조피염제정 혼합제정과 섞어 알콜농도가 30%가 되게 희석하여 만들었다.

있는 이삭기환자 62례, 급성장액성치수염환자 64례 모두 126례를 대상하였는데 여자가 69례였다.

이삭기환자의 연화상아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열균한 생리식염수나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씻어내고 약용으로 물기를 없앤 다음 적당한 크기의 약용에 약물(연구조에서는 산초세신치통수, 대조조에서는 탐파제놀)을 적셔서 구멍안에 넣고 가봉하였다. 약물을 적용한 후 2일간적으로 검사하고 6일간의 성적으로 치료효과를 관찰하였다. 증상이 소실되면 복약을 하고 연구종전을 하였다.

치료효과는 약물을 1번 적용하여 모든 증상(을 발아픔, 자발아픔)이 소실된 경우를 나은것으로, 약물을 2번 적용하여 약간의 증상은 남아있지만 점차 소실된 경우를 줄어진것으로, 약물을 2번 적용하였어도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를 변화 없는것으로, 약물을 적용한 후에도 증상이 심해진 경우를 나빠진것으로 평가하였다.

연구성적

1. 깊은 이삭기환자 아픔땀이효과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깊은 이삭기환자 아픔땀이효과는 대조조에 비해 연구조에서 유의성있게 높았다.

표 1 깊은 이삭기환자 아픔땀이효과(n=31)

조	나은것	줄어진것	변화 없는것	나빠진것	아픔땀 효과(%)
대조	19	5	4	3	77.4
연구	28	2	1	0	96.8

*: p<0.05(대조와 비교)

2. 급성장액성치수염환자 아픔땀이효과

표 2 급성장액성치수염환자 아픔땀이효과(n=32)

구분	나은것	줄어진것	변화 없는것	나빠진것	아픔땀 효과(%)
대조	15	7	6	4	68.8
연구	25	5	2	1	93.8

*: p<0.05(대조와 비교)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급성장액성치수염환자 아픔땀이효과는 대조조에 비해 연구조에서 유의성있게 높았다.

맺는 말

산초세신치통수는 아픔땀이효과가 매우 높약물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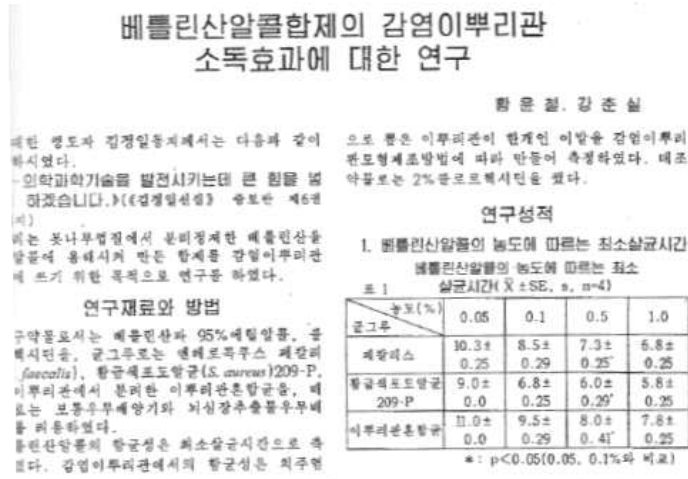
- [1] Kishor Gulabvalia et al., Endodontics, Mosby, 8 269, 2014.
- [2] 黄勇, 中国中药杂志, 8, 111(2010).
- [3] 钱京群 等, 河南实用中西医结合杂志, 5(1) 11(2002).

심사위원: 산초세신치통수

출처: 『치과·안과·이비인후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년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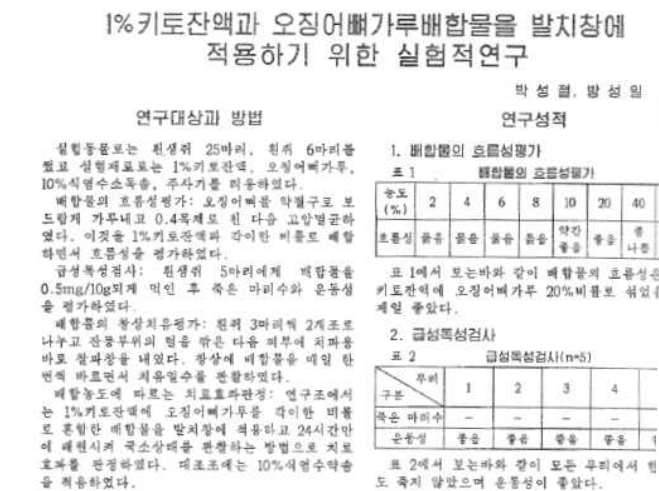
그림 3. 산초세신치통수의 이발아픔땀이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붓나무 껍질에서 베를린산을 분리 및 정제하여 에틸알콜에 용해시킨 합제를 치근 감염의 소독과 살균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다음 그림 4 참고), 오징어뼈 가루와 1% 키토산액의 배합물을 발치창에 적용하여 배합물의 흐름성·급성독성·창상 치유효과 등을 연구한 결과물도 존재함을 확인(다음 그림 5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북한 치의학 및 의학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술적 연구에는 고려의학과와 다양한 연계와 융합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치과·안과·이비인후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년 제2호

그림 4. 베를린산알콜합제의 감염이뿌리관 소독효과에 대한 연구



출처: 『치과·안과·이비인후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년 제4호

그림 5. 1% 키토잔액과 오징어뼈가루배합물을 발치창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

○ 신기술의 개발 및 적용:

북한 치의학 학술적 연구의 최근 동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치과의료·의과학적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임상에까지 적용하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6와 7에서 볼 수 있듯, 21세기 정보산업시대·지식경제 시대로 접어든 전 세계적 흐름이 북한 내에도 크게 영향을 끼침에 따라, 치과 환자들의 구강 내 위생 관리 상태 및 치주 상태 등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하고 그에 따른 진단과 치료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임상에서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입안위생관리지원체계 《오복》 1.0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최진희, 리명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금은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인것만
큼 의학과과학기술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수
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김정일선정》 증보판
제25권 405페이지)

우리는 환자들의 입안위생관리상태와 치주상태
를 종합적으로 기록 및 자료기造化하고 그에 따
라 진단 및 치료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과학적으
로 진행할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연구방법

입안위생관리지원체계 《오복》 1.0은 프로그
램작성언어인 Java Script와 C++언어를 이용하
여 개발하였다. 입안위생관리지원체계는 병력서
선해부분과 병력서기록부분, 치료계획 및 배원주
기결정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병력서선해부분 환자등록장과 병력서기록창으
로 이루어졌다. 환자등록창에는 환자의 일반적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직장위치)를 입력
및 보관하게 되어있으며 병력서기록창에서는 환
자들의 배원날자에 따르는 병력서기록을 볼수 있
게 하였다.

병력서기록부분 병력서기록부분은 입안위생상
태평가창과 치주상태기록창으로 이루어졌다.

입안위생상태평가창에서는 배원한 환자의 구체
적인 문진내용을 기록한 다음 치태열색제로 치
태열색을 진행하여 환자의 입안위생상태를 평가
한다.

높은 이빨을 기준으로 배원주기를 결정하였다.

연구성적

1. 프로그램에서 종합적으로 자료기造化한
자주상태검사지표

- ① 발치 및 임플란트
- ② 이물연골이와 치주주머니깊이
- ③ 치조골흡수율
- ④ 출혈
- ⑤ 부종 및 음식물찌루기
- ⑥ 분기부병변(0~3도)
- ⑦ 이빨응양도(0~3도)
- ⑧ 전악면드레일화상

2. CPITN지수와 그에 따르는 치료계획

표 1 CPITN지수와 그에 따르는 치료계획

CPITN지수	치료계획
0	제도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1	입안위생개선, 이빨이치도
2, 3	입안위생개선, 이빨이치도, 치석제거
4	입안위생개선, 이빨이치도, 치석제거, 수술적 및 정형학적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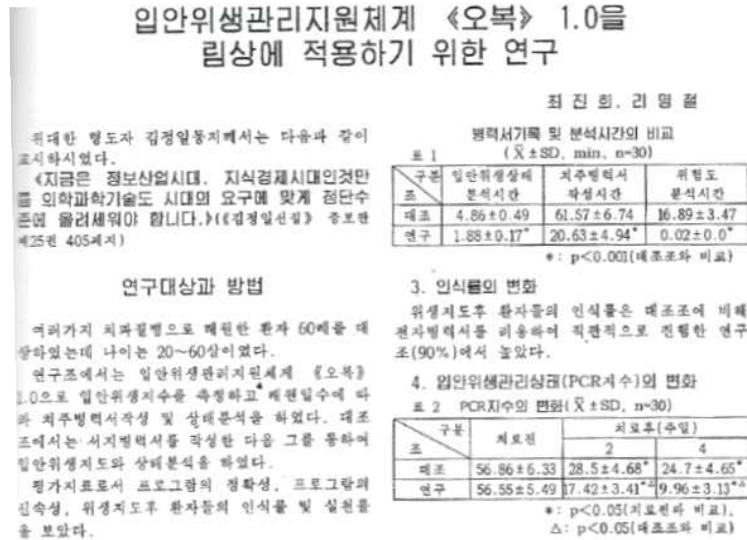
3. 위험도지수에 따르는 배원주기

표 2 위험도지수에 따르는 배원주기

번호	위험도지수	평가	배원주기
1	91~100	아주 높음	발치 및 1달후 배원조치
2	71~90	높음	1~2달후 배원조치

출처: 『치과·안과·이비인후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년 제1호

그림 6. 입안위생관리지원체계 ‘오복 1.0’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출처: 『치과·안과·이비인후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년 제2호

그림 7. 입안위생관리지원체계 ‘오복 1.0’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위와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기술을 의료 기구에 접목하여 입술 및 구강 내 근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다음 그림 8 참고). 북한에서 직접 개발한 입술운동기구와 수입산 입술운동기구의 근력 상승효과를 대조하였고, 21~50세 연령대의 구륵근의 근력 및 근력지속시간 수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치과·안과·이비인후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년 제2호

그림 8. 입술운동기구를 얼굴근육기능장애의 개선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

2. 성과 및 기여도

○ 북한 치의학 학술 연구의 동향 및 방향성 파악:

2019년 북한 내 치의학 학술 연구의 동향에서 보이는 특징을 다시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면, 1) 고려의학과의 연계성, 2) 의·과학분야 신기술의 개발 및 임상 적용, 3) SCI급 논문의 출판과 해외 저자와의 공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뻐기때 저주파침혈자극에 의한 국소마취에 대하여

리 원 남

위대한 정도와 집중일도지제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었다.

《진단과 치료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여러가지 선진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입니다.》(《집정일선집》 증보판 제11권 76페이지)

1. 저주파침혈자극에 의한 국소마취의 개념

1) 저주파침혈자극에 대한 이해

파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의료봉사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짐에 따라 고려의학적인 치료원리에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물을 적극 결합하여 아픔과 고통이 없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여러가지 침혈자극방법들을 적극 개발 도입하고있다. 이러한 침혈표면자극 방법들 가운데서 가장 일찍이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고있는 자극제는 저주파였다. 오늘에 와서도 침혈표면적자극로봇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있는 전자물리적자극제로서는 저주파가 의연히 그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 이유는 우선 저주파가 다른 전자물리적자극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발생이 쉬우며 장치적으로도 매우 간단하면서도 안전하기때문이다. 또한 저주파가 다른 자극제들에 비하여 그 조종과 변조가 매우 원할하고 유연하며 여러가지 파형들과 주파수성분들에 따라 각이한 생물리학적작용효과를 나타내기때문이다.

실제로 정현형저주파는 아픔및작용이 대단히 세며 감응과는 근육과 조직의 활동적인 수축과 이완작용을 일으켜 자극부위의 혈액순환과 물질대사를 촉진시키고 마비된 신경과 근육을 활성화한다. 써누스빈조파는 조직심부침투력이 세므로 표면자극으로써도 심부의 조직과 장기들을 자극하여 혈액순환과 물질대사를 활성화한다. 또한 비교적 낮은 주파수의 전류는 아픔및, 진정작용, 소열작용을 나타내며 중간주파수, 높은 주파수의 전류는 쉽게 물안에 깊이 들어갈수 있으므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속도를 빠르게 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최근에 호침으로 피부를 찌르는 기계적인 관혈적자극뿐 아니라 저주파침혈표면자극, 레이저침혈조임, 자기마당침혈조임, 침혈에 대한 공기이온화작용 등과 같은 비관혈적이고 비기계적이며 비침투적인 침혈에 대한 자극작용도 치료효과를 나타내고있다는 같은 연구자료들이 제기되고있다. 침혈에 대한 현대의학전제와 연구자료들을 종합하여보면 그 구조와 기능이 신경계역적기전

과 밀접히 연관되어있으며 또한 고려의학적인 침구치료원리에 현대적인 전자물리적자극제를 합리적으로 결합시켜 아픔과 고통, 조직손상이 없으면서도 치료효과가 높은 경미적인 자극표면에 기초한 현대적인 침구치료방법과 수단을 더욱 개선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있다.

이러한 원리로부터 지금까지 여러가지 현대적인 전자물리적자극인자들을 침혈표면에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침혈표면자극방법으로 여러가지 침침술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2) 저주파침혈자극에 의한 국소마취원리

정현형저주파전류는 식물계 매종모양의 써누스형전류가 대위제있는 형태로서 써누스형전류라고도 한다. 정현형저주파전류의 가장 특징적이며 효과적인 작용효과라는 아픔및이효과이다. 아픔및작용이 다른 저주파전류에 비하여 매우 독렬하기때문에 아픔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가지 침침치료에 많이 쓰이고있다. 이 전류는 한 연구자가 100Hz의 정현형저주파전류로 치료할 때 현저한 아픔및이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후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다. 정현형저주파는 감수기에 대한 자극작용의 전지에서 볼 때 피부의 표면감수기에 대한 자극작용이 강할것임이 특징인데 약한 전류의 세기에서는 가발제 찌르는감이 있고 전류세기 커짐에 따라 작은 근육들의 진동감이 있다.

정현형저주파전류를 해당 침혈에 자극하면 외감수기와 신경과 근육의 고유감수기에 대한 불통적인 자극으로 병적일물스의 진도를 차단함으로써 아픔역치를 높인다. 또한 입물스전류의 작용으로 면연제용과 구성성성용발항으로 많은 양의 엔도르핀을 함유한 특수한 매간침을 형성한다. 이 저주파전류는 생 아픔및이효과와 함께 진정, 진경, 소열 등의 생물리학적작용효과로 하여 더욱 뚜렷한 치료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2. 이뻐기때 저주파침혈자극에 의한 국소마취의 적용

현재 치과임상에서는 이뻐기때 리도카인을 비롯한 국소마취약에 의해 아픔및효과를 얻고있다. 그러나 치과임상에서 진행되는 국소마취는 약물에 포함되어있는 아드레날린의 작용으로 심장혈관질환, 순환기질환, 내분비질환을 비롯한 여러 환자들에 대한 적용이 제한되며 주사바늘을 찌를 때의 아픔,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 그로 인한 합병증들이 나타날수 있다.

출처: 『치과·안과·이비인후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년 제2호

그림 9. 이뻐기때 저주파침혈자극에 의한 국소마취에 대하여

위의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북한 치의학 학술 연구에서의 고려의학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며, 이는 먼저 언급한 천연물 약제나 민간요법을 활용한 의학적 치료법의 활발한 적용 뿐 아니라, 침술 등의 여러 전통 의학적 치료 방법을 기존 치과적 치료에 결합시키기 위한 시도로까지 이어지는 등 매우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독특한 시도들은 장차 남북한 치의학계간 상

호 협력의 시기가 열렸을 때에 남한 내 치의학 연구자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학술연구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 과학분야 신기술을 개발하고 임상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북한 치의학계 내에서도 일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남북한 치의학계간 협력에 있어 고무적이다.

또한 북한은 SCI급 논문 출판과 해외 저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ciVal을 통해 북한 출신 저자의 논문 출판 경향을 살펴본 결과 Top 10 저널에 대한 논문 수록 비율이 2015년 32.5%에 달했다. 또한 해외 공동연구 비율이 최근 60%를 차지했는데, 북한과의 보건의료 분야 공동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한 국가는 남한이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공동 연구 추진에 대한 북한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성을 알 수 있다.²⁾

대한민국의 치과 의료 기술의 선진화 및 학술 연구의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이미 뚜렷한 추세이며 널리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남북 치의학계간 교류의 당위성 및 효과성을 강화한다면 서로 안정적으로 공조 및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신희영 외(2017). 「통일의료-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제 4 절 국내 유관기관 컨퍼런스 발표 및 토론

1. 제 41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총회(APDC 2019) 참여

1-1. 행사 개요

- 일시: 2019년 5월 10일 (금) 10:00~10:50
- 장소: 서울시 삼성동 COEX
- 발표자: 이승표 서울대학교 통일치의학협력센터장
참여 연구원: 김지민
- 내용: 해당 총회는 대한민국 치의학의 국제적인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한국 치협의 국제 교류 또한 활성화된 배경 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으며, 최신 치의학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270여개의 학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기초 치의학을 중심으로 전쟁·재난 치의학, 턱뼈 괴사증, 치과 감염증을 다루는 이슈부터 영상 치의학·빅데이터, 치과 교정, 치과 약물학·전신질환, 심미치의학, 치과진단검사와 의료기기, 스포츠 치의학, 노년 치의학 관련 주제를 다루었고, 이와 더불어 구강내과, 보철, 소아치과, 수면무호흡, 턱관절 장애, 안면미용, 치아신경치료 및 보존, 치주 등 최신의 임상 케이스 관련 세션 또한 마련되어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1-2. 통일치의학 세션 - 「하나 되어 함께 하는 한반도 치의학의 발전」 주제 발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일치의학’ 세션은 특별 세션으로 준비

되어 3일간 진행되었으며, 한반도 지역의 치의학 현황과 미래 협력적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하여 ‘하나 되어 함께 하는 한반도 치의학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의 대북 지원 및 의료계 등 민간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사업의 중요성 및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며, 북한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지원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장차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치과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로서 평가되었다.



행사 사진

2. 서울대학교 2019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 참여

2-1. 행사 개요

-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3:30~15:30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 발표자: 이승표 서울대학교 통일치의학협력센터장

참여 연구원: 김서은, 김지민

- 내용: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을 통해 2019년 추진된 통일기반 구축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개최된 2019 통일기반 구축 연합 학술대회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학교 차원에서 진행해온 다양한 학술 연구 뿐 아니라 남북 교류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준비 사업에 대한 성과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해당 대회에서는 교내 30개 기관이 참석하고 34개 팀의 연구사업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보건의료·인문·법 행정·탈북민·경제·수의·치의·약·농업·간호·생활·평화사상·평화체제·환경·지리·교육·북한사회문화·도시·에너지·역사·미디어·한반도 평화학·국토 등의 17개 분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2. 「통일치의학 학술 연구를 통한 정책 수립」 주제 발표

이에 참여하였던 통일치의학협력센터의 발표는 ‘통일치의학 학술 연구를 통한 정책 수립’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남북한 간 평화적 통일의 정의·우리나라의 근현대사적 배경 및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흐름 속에서 통일의 당위성과 그 의의로부터 출발하여, 통일·대북정책·대북 의료 지원 사업·남북한 간 의학 부문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국내 의료계의 인식 변화와 장차 다가올 한반도 평화 시대의 남북 간 치과 의료적 교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내 의료계의 의견을 다루었다. 그와 더불어 현재까지의 북한 내 치과 의료 인력의 체계·현황 및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고, 최근 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북한 내 치의학계 동향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통일 관련 여러 기관 및 통일치의학계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더불어 대한민국 치의학계가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당면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 치의학 교육 및 치과의료 체계 동향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치과의사는 ‘구강의사’로 명명된다. 남한의 치과 보조 인력인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북한의 치과 보조 인력으로서 ‘보철사’와 ‘간호원’이 활동하고 있다. 구강의사는 의학대학 내 총 6년 6개월의 구강학부 과정을 밟으면서 양성되며, 보철사는 보철기능공학교에서 2년 과정을 통해, 간호원은 간호원 양성소와 간호학교에서 각각 6개월과 2년 교육을 받고 양성된다. WHO에서 2011, 2012년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구강의사의 수는 약 4,314명으로 전체 의사 수의 약 6% 정도이다.

구분	의료인력	양성기관	양성기간	비고
상급보건의료 일군	의사	의학대학 임상의학부	5년 6개월	
		의학대학 전문반	7년	2013년 개설 정보
		의학대학 통신학부	6년	준의 간호원 대상 1년 2회 교육
	치과의사	의학대학 치과의학부	5년 (6개월)	2016년 구강학부 명칭이 변경
	고려의사	의학대학 고려의학부	5년 6개월	
	위생의사	의학대학 위생학부	5년	
	체육의사	의학대학 체육의학부	5년 6개월	최근 평양의학대학 설립
	약제사	의학대학 약학부, 약학대학	5~6년	
중등보건의료 일군	준의	의학전문학교 기초의학과	3년	
	보철사	보철기능공학교 의학전문학교 구강과	2~3년	
	조산원	의학전문학교 조산과	3년	
	조제사	의학전문학교 약학과	3년	
보조의료 일군	간호원	간호원양성소	6개월	의료기관 운영
		간호원학교	2년	도 단위 운영

표 10. 북한 의료인력 체계 개관

구분	의료인력	양성기관	양성기간	비고
상급보건의료 일군	의사	의학대학 임상의학부	5년 6개월	
		의학대학 전문반	7년	2013년 개설 정보
		의학대학 통신학부	6년	준의 간호원 대상 1년 2회 교육
	치과의사	의학대학 치과의학부	5년 (6개월)	2016년 구강학부 명칭이 변경
	고려의사	의학대학 고려의학부	5년 6개월	
	위생의사	의학대학 위생학부	5년	
	체육의사	의학대학 체육의학부	5년 6개월	최근 평양의학대학 설립
	약제사	의학대학 약학부, 약학대학	5~6년	
중등보건의료 일군	준의	의학전문학교 기초의학과	3년	
	보철사	보철기능공학교 의학전문학교 구강과	2~3년	
	조산원	의학전문학교 조산과	3년	
	조제사	의학전문학교 약학과	3년	
보조의료 일군	간호원	간호원양성소	6개월	의료기관 운영
		간호원학교	2년	도 단위 운영

표 11. 북한 의과대학 치과의학부 교육과정 (청진의학대학 치과의학부)

북한에는 총 12개교의 의과대학(평양에 2개교, 그 외의 도에는 각 1개교의 의학대학이 존재)이 설립되어 있으나 치의학을 가르치는 구강학부는 일부 대학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남한의 치의학과는 총 6년 과정으로 예과 2년 + 본과 4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북한의 구강학부는 총 6년 6개월의 과정을 가지며, 예비학부(남한의 예과와 같다) 1년 과정을 마친 후 5년 6개월 동안 기초학 및 임상학 과정을 마친다. 임상실습은 4, 5, 6학년 때 이루어지며 구강학부 학생들은 임상 과목 교육 및 구강병원 실습과 기공 실습을 받는다. 남한의 치과대학에서는 기공 실습이 성적이 크게 반영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북한의 치과대학에서는 기공 실습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북한의 의료체계는 무상치료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1차부터 2·3·4차 의료기관이 있다. 1차 의료기관으로는 리/동 진료소, 종합진료소, 리인민병원이 있으며 2차 의료기관으로는 시/군/구역 인민병원, 3차 의료기관으로는 도 인민병원, 그리고 4차 의료기관으로는 조선 적십자 종합병원이 있다. 이 중 의학대학 병원과 시/군 인민병원에는 구강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 구강의사가 배치되어 있다.

북한의 주민은 구강 진료를 위해 1차 진료기관인 진료소에서 보철사나 구강의사를 거쳐서 2차 진료 기관에서 구강 의사로부터 본격적으로 진료를 받게 되며 이후 전문성이 필요한 진료, 보철 치료 및 큰 수술은 3차 진료 기관에서 받게 된다. 4차 의료기관은 희귀질병에 대한 치료와 연구 목적의 기관으로 주민들은 대부분 1~3차 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구강의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진료소나 인민병원에는 보철사를 두어 구강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진료소 대부분은 치과장비가 없어서 환자들은 시/군 병원으로 보내진다. 추가적으로 적십자 병원, 결핵병원, 운송부병원, 사회 안전부 병원, 방직 병원, 건설자 병원, 육/해/공군병원 등의 중앙병원

과 산업 지역의 산업병원, 동의종합병원, 간염병원, 김만유병원, 평양산원, 제1,2병원과 구강예방원 등에 구강의사가 배치되어 있다.

○ 북한 치의학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

북한의 치과의사 양성 체계 및 치과 의료 기관 현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은 다른 의료 인력에 대한 정보와 달리, 북한 내에서 발행되는 관련 1차 문헌자료의 부족 및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증언 정보 수집의 한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 여러 제한점이 존재한다. 향후의 남북한 간 의료 체계의 교류 및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북한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의학대학 치과대학부 및 치과 관련 각급 의료기관의 현황·치과 의료 장비의 보급과 이용 현황·급수별 치과 의사의 수준·개인 집 치과 및 보철치료 현황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 이탈 치과의사 및 치과의료 인력의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남북한 치과의사 양성체계 간 세부적 차이·북한 의학대학 치과대학부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평가 수준이 남한 내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의 일반적 수준에 상응하는지 여부·북한의 의학대학 치과대학부를 졸업한 6급 치과의사의 실제 치과 치료 임상 역량을 남한 내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자의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북한의 1~4차 및 중앙·전문 의료기관 내의 치과 의료 수준과 관련 의료장비 운용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상호간에 정확히 비교하여 국시원 인정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 남북 간 상호 치과의료·보건 분야 전문직 재교육 과정의 필요:

남북한 보건의료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상호 전문직 재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통일 후 의료체계의 안정화와 보건의료 인력의 동질화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의 치과 의사들로 하여금 남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신 치과진료 임상이론·치과기구 및 재료에 익숙해질 수 있는 임상 교육과 실습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특정 기간 동안 북한 치과의사들이 북한 지역 내에서 계속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추가 임상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남북한의 의료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간	재교육 프로그램 내용
치과의사 준비과정	2년	· 북한이탈 치과의사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별과정으로, 치과의사 국가시험 대비 · 남한 치의학 적응 및 임상 교육: 구강해부학(2~3개월), 구강병리학, 구강조직학, 전공 및 마네킨을 이용한 전 임상실습, 환자대상 실습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특별과정	4년	· 1~4학년 과정(기초 및 임상 과목) · 기초 과목: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Biofilm과 구강질환, 치과의료와 정보기술, 치의학의 역사, 구강보건교육의 최신동향, 지역사회구강보건, 구강질환의 예방적 진료, 미생물과 감염면역 등 · 임상 과목: 의료 커뮤니케이션, 장애인 치과학, 새로운 치과의사, 임상 심리학, 노인 치과학, 심미 치과학, 치주질환의 치료, 법치의학, 구강내과학, 치주과학, 보철과학, 보존학, 교정학, 소아치과학, 구강악안면외과학, 구강악안면병리학, 구강악안면방사선학, 치과마취학 등

표 12. 북한이탈 치과의사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예시

또한, 통일 후 북한 지역 내에 도 단위 혹은 더 작은 단위 별로 치의학 임상교육을 담당할 임상 교육 거점 병원의 지정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임상교육 거점 병원은 남한의 치과대학 및 치과대학 병원과의 자매결연 형식으로 네트워크를 맺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임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병원 및 국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치과의료 체계와 치의학 교육과정·치과 인력 현황에 관련된 지표 및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의료보

건 세부 영역별로 참여 가능한 국내 및 국제기구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적절히 예산을 배분하며 진행 경과를 조정한다면, 북한 치의학 및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안정적 재정 확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남북 간 치의학 용어의 통일:

북한의 기본 언어 정책인 ‘민족어 교육’에 따라, 영어 등 외래어 용어 및 한자어 사용의 폐지·민족어의 주체적 발전과 어휘 정리 사업 등이 북한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 치의학계 내 치의학 용어의 사용 또한 그 영향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순우리말로 구성된 치의학 용어가 대부분인 가운데 한자어에서 비롯된 용어의 소수 혼용 및 영어 치의학 용어 사용의 지양 등으로 인해 남북한 치의학계간 용어의 상이함이 향후 남북한 치의학계 간 동질성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의 이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 간 치의학 용어 사용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남북 치의학용어 공동 사전’, ‘남북 보건의료 용어 공동 사전’ 등을 편찬하기 위한 남북한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 사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용어 사전의 편찬은 의료의 각 세부 영역별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북한 보건 의료 인력 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 남북 치의학 교류의 사회 경제적 의미: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구강 보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치의학적 발전을 위해 2013년 10월에 대형 치과병원인 ‘평양 류경 구강병원’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향후 남북한 간 치의학계의 공

조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북한 내 치과의료 기술의 향상과 함께 관련 의료 기기 및 기구 등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면, 지역 내 의료 산업 및 관련 제반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장기적인 생산성과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특별히,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전략을 구상할 때, ‘생산’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대북 보건의료 지원에 필요한 치과 의료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나 처치 물품, 의약품, 특수치료·영양 제품의 생산 공장을 개성 공단 등의 경제 협력 모델을 활용하여 구축하고, 이를 대북 보건의료 지원과 융합하여 지속적인 경영 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중장기 지원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향후 전 세계적인 보건의료지원 체계가 흘러가는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북한 내의 치과 질병 부담의 유형과 원인 및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국제 기구와 민간단체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로드맵 구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과거의 단편적인 지원이나 한시적 협력 모델을 넘어서서 경제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창조적으로 개척하고, 남북이 모두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책 제언:

남북한 간 치의학의 협력과 호혜적 발전관계를 위한 당면 과제로서, 1) 상호교류를 통한 북한 내 구강 보건 실태 조사 및 주민들의 needs 확인, 2) 필요 사업 목록의 정리 및 사업의 우선순위 확립, 3) 남북한 주민의 구강 건강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방안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반도 외부 국제사회 내 국제기구·교육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구촌 전반의 보건 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

전 목표(SDGs)의 세 번째 목표인 ‘보건증진(Good Health and Well-being)’을 조속히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 향후 해야 할 일:

이와 같은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한 내 치의학계의 치밀한 협력과 준비, 협의체 구성, 긴밀한 교류와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된 목표의 설정, 단계별 실행 계획의 수립,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면, 남북한 치의학의 동질성 회복 및 통합·공동의 화합과 발전을 성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남북한 사회 전반의 상생과 공영의 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2019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

2019. 11. 26.(화) - 11. 27.(수)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만남이십니까?
서울대학교는 총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준비의 노력으로 2015년부터 통일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는 30개 교내 기관에서 34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들 사업들을 통해 서울대학교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연합 학술대회는 통일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대학교의 연구 역량을 융합하여 드러낼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임 경 훈** 올림

세션6: 13:30~15:30(목련)

수의·치의·약

사회자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발표1 통일치의학협력센터

통일치의학 학술 연구를 통한
정책 수립

발표자 **이승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토론자 **노상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행사 포스터

3. 성과 및 기여도

- 이를 통해 그동안 부분적·제한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 내 구강 보건 및 치과 치료·치의학교육의 실태 및 현황을 직접 수취 후 심층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 도래의 현 시점에 가지고 있는 실제적 의미 및 대한민국 치의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 이것은 비단 북한의 치의학 기술 및 연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미래적으로 지속가능한 남북 치의학계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라는 합의된 목표를 세우고 북한 주민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구강 보건 수준의 향상 및 북한 사회 전반에 치과 의료를 통한 경제적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통일치의학의 다양한 접근법을 구체적 방안 및 당면 과제의 제시를 통해 드러내 보였다는 데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제 5 절 2019 통일치의학포럼 ‘남북교류 평화롭치의’ 개최

1. 「북한 주민 구강 건강 상황에 기반한 교류 정책 수립」 주제 발표

○ 연자: 이승표 서울대학교 통일치의학협력센터장

참여 교수: 류현모, 임정준

참여 학생: 김정진, 김민경, 성희운, 유혜리, 이주현, 최다솔, 최봉수

○ 일시: 2019년 12월 31일 (화) 14:00~17:00

○ 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치의학대학원 206호

○ 내용: 대한민국 치의학 분야에서의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의 궁극적인 방향 설정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의 합의 아래 세워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반하여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 증진’의 목표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북한이란 대상을 국제사회 공동체 속에서 합의된 목표를 함께 추구해나갈 수 있는 협의체로 바라봄을 통해 치의학 및 구강 보건 분야에서의 남북한 간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향후 북한 내 치과의사가 지역 내 주민을 선진화된 의료기술로 치료하도록 기술적 협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적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북한 내에 설립하여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등 구강 의료·보건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과 기술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라오스와 미얀마 내 구강 의료·보건 현황 및 치의학교육 역량의 발전은 비단 해당 국가 뿐

아니라 북한 치의학계의 발전과 그에 기반한 경제적 역량 향상, 주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2. 「북한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 세부 토의

- ‘앞으로 다가올 남북한 평화시대에 추진가능한 치의학계 남북 대학 간 교류’에 관한 학생 의견
 - 국시 체제의 통합: 통일 후 남북한 간의 의료 체계 및 수준 차이에 의한 사회적 혼란 감소에 그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 내 더 많은 의료 인력을 동원하여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자격증 체계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치의학 역량의 향상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치의학계 간 상호 존중과 공조·협력을 위해 남한과 북한의 교수들로 절반씩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기관 내에서 일할 관계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노력: 남한과 북한의 이념의 차이에 관한 상호적인 이해를 쌓기 위해 관련 과목들을 학기 중 필수 과목 및 선택 과목으로 설정하고, 역사·문화적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남북한의 역사 관련 과목 수강을 필수로 진행하도록 한다.
 - 전치제 개최: 대한민국의 치과대학·치의학 대학원생들의 연합 축제인 ‘전치제’를 북한 내 치과대학과 함께 공동 개최하여 운동·학술·음악 및 예술 공연의 분야 내에서 남북한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생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한다.
 - 상호간 대학방문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육과정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남북한 치의학계의 교과과정의 통합과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예과와

본과 과정에서의 편입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방학 동안 남북한 내 치의대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하며(예시: 서울대학교 SNU in the World 프로그램) 학술적·문화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장을 형성할 수 있다.

- 학술대회 및 포럼 공동 개최: 남북한의 치의대 교수들 간의 학술적 교류와 공조를 중점으로 하는 학술대회 및 포럼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여, 현재 남북한 치의학계 내 존재하고 있는 치과 용어의 차이를 줄이고 통합시키거나 선진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고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 ‘주민 구강 건강 향상 방법’에 관한 학생 의견

- 지역 거점식 치과 질환 예방교육 및 진료 프로젝트 제안: 이 프로젝트의 활동 주체는 북한 내 7개 거점 치과대학 학생 및 교수진들로 구성하고, 대상은 어린이와 산모, 노인들이다. 북한의 치과대학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치과 질환의 예방 교육을 위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실시하여 구강 보건의 질을 끌어올리고, 북한의 치과대학 교수진들이 의무적 실습 제도의 일환으로 주민 대상 무상 구강 진료를 진행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진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칫솔과 치약을 제공함을 홍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의료진들에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의 협력체는 WHO 및 의료·보건 분야의 국제 기구들로서, 주민들의 치과 치료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관련 기구들을 전달하도록 도울 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오토바이 및 트랙터를 이동수단으로 제공하여 북한 지역 곳곳의 주민들을 향한 해당 프로젝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다. 북한 지역 내 천연 자원을 활용한 질 좋은 치약 및 칫솔 등의 기구를 개발하고 생산하여 북한 전역 뿐 아니라 남한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들의 생산성·경제적 역량 등을 높

일 수 있다. 또한 남한 치의학계에서는 자가충전식·태양광발전식 이동용 치과 기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히, 미래의 중요한 사회적 자원인 어린이들 중 취약계층에 속하는 아이들이 위 이동식 치과기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기획하고 이를 활용하여 스스로 구강 보건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강 교육 자료를 더불어 구상하였다.

- 기대효과: 단기적으로는 치과용 기구 샘플을 북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의 구강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예상되는 장기적 효과로는 치과 검진을 위한 이동용 체어 등의 제작·활용 기술을 북한 내 치과 의료기기 개발 인력들에게 전수하고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여 더 나은 기술의 기기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 내 보건 서비스 수혜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구강·공중 보건에 앞장서도록 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행사 사진



행사 현수막

2019 통일치의학 포럼

남북교류 평화롭치의

참가자 전원 기념품 및 맛있는 간식 제공

2019. 12. 31 (화) 14:00 ~ 17:00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관악캠퍼스 206호

시간	연자	연제
14:00~14:10	등록	
14:10~14:30	개회사 및 축사	
14:30~15:30	이승표 (서울대학교 통일치의학 협력센터장)	북한 주민 구강건강 상황에 기반한 교류 정책 수립
15:30~17:00	coffee break 및 조별토의	북한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대처방안

주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 주관: 서울대학교 통일치의학협력센터 | 신청하기 > bit.ly/평화롭치의

행사 포스터

3. 성과 및 기여도

- 현재 치의학 분야에서의 남북 간 교류 현황을 파악하고, 북한과 공조하여 합의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협의체로서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 남북한의 치의학계가 가야 할 길은 단순한 국제적 원조와 호혜적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공동의 깊은 합의를 거쳐 공생과 상생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단단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학사·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치의학 분야 남북 간 교류 협력에 대한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였다. 학생들의 참여는 포럼의 기획과 진행, 준비와 운영에서 강의와 토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재학생들 간 남북 치의학의 동질성 회복 및 통합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더불어, 포럼에 참여한 학생들 간 남북 치의학의 평화적인 협력관계 구축이란 목표를 위한 자발적인 행동의 필요성이 고취되어, 스스로 관련 주제에 관한 독서활동 및 남북청년 교류모임에 참여하고 치의학과 내 다른 학생들의 관심과 학술적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 남북 간 구강보건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안정적인 치의학 교육 협력 제도의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 및 점검하고 새로이 구성하였다.
- 북한 이탈주민 또는 북한 주민의 구강 보건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추진해야 할 구강 보건 시스템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치의학 분야에서 남북 간 평화적이고 긴밀한 교류협력의 때가 열리게 되었을 때 양 측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 및 보건 환경 개선

을 위한 시스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깊은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한발 더 나아가 시스템의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 대안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 치의학 분야 남북 대학교류 방안에 대한 심층 토의를 통해 포럼 참여 학생들 간 남북한 치의학과 학생들이 공조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공동의 구강 보건 증진에 대한 세부적 목표를 세웠다. 이는 단순히 치의학 분야의 학술적 교류에서만 그치지 않고 교류의 범위를 풍부하게 확장시켜 문화적·역사적·사회적 배경을 골고루 고려한 남북한 치의학계 교류 및 협력의 기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반영한 제안서 및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제5장 사업 성과 고찰 및 결론

제 1 절 사업의 적절성

- 현 시대가 요구하는 통일치의학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접근법을 수립하였다. 통일치의학 교육 및 연구의 주체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통일치의학 교육 및 연구, 학술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치의학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북한 내 치의학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풍부한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그동안 부분적·제한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 내 구강 보건 및 치과 치료·치의학교육의 실태 및 현황을 직접 수취 후 심층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 북한 내 구강 보건 및 치과 치료 및 임상·치의학교육 관련 용어의 파악 및 차이점 파악, 통합적 용어 마련을 위한 논의 등을 다각적으로 진행하였다. 단순히 북한 내 치의학 용어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내 치의학 용어에 상응하는 북한 내 용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및 그 다양한 쓰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용례를 정리하여, 향후 통일치의학의 학술적 깊이를 더하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9년 북한이탈주민 구강 건강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북한 주민의 구강 보건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북 구강 보건 증진 사업 및 구강 보건 시스템 개선 정책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예방교육 사업과 함께 상실치 수복을 위한 자체 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019년까지 남한에 입국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구강 상태 및 치과 질환의 종류를 확인하고 다각적인 정보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 치과 질환의 적극적인 예방 및 초기 대응정책 마

런, 장기적인 치료비용 확대 최소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를 확보하였다.

제 2 절 사업의 영향력

- 향후 남북한 간 공동으로 진행하는 치의학 연구의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타진하고 그에 필요한 효과적인 학술적 공조와 협력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기 위해, 현재 북한 치의학 학술 연구의 주요 동향 및 그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 통일 후 북한 치과 의사들의 자격 부여를 검토하고 관련 연수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북한 내 구강보건 및 치과 의료교육의 수준과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향후 필요하게 될 치의학교육 및 연수·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제안을 검토하였다.
-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학사·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남북 치의학·구강보건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 간 남북 치의학의 동질성 회복, 통합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이는 단순히 치의학 분야의 학술적 교류에서만 그치지 않고 교류의 범위를 풍부하게 확장시켜 문화적·역사적·사회적 배경을 골고루 고려한 남북한 치의학계 교류 및 협력의 기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졌다.
- 미래적으로 지속가능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라는 합의된 목표를 세웠으며, 북한 주민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구강보건 수준의 향상 및 북한 사회 전반에 치과 의료를 통한 경제적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당면 과제를 제시하였다. 향후 통일치의학의 다양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남북 치의학계간 교류

의 당위성 및 효과성을 강화한다면 남북 치의학계가 서로 안정적으로 공조 및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